



濁流淸論

제36호 2015년 3월 20일(금)

발행인: 이순일 / 편집: 편집위원회

< 알려 드립니다 >

◇ 수시로 원고 접수합니다

탁류청론은 아주대학교 교수님들의 의견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교수님들의 원고는 교수회 이메일 (jjy263@ajou.ac.kr)로 보내주십시오. 탁류청론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면 위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 차

<u>더불어 푸른 솔밭에서</u> 신임의장 인사말	1
<u>특집</u> '신임 총장에게 바란다' 주제별/단대별	2
<u>특집</u> 신임 교원 소개	11
<u>교수들의 건강칼럼</u> 식품알레르기, 알고 함께 대처해 가요!	15
<u>소식</u> 교수회 선거 선출결과	16

더불어 푸른 솔밭에서

신임의장 인사말

물리학과 이 순 일

신임 총장의 취임을 계기로 우리 대학에서 볼 수 있기를 기대하는 변화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학 운영의 기준이 바뀌는 것이다. 언젠가부터 '합법성'이 우리 대학의 운영 기준이 되어 버린 것은 아주 안타까운 일이다. '합법성'이 기준이 되다 보니 불법만 아니면 어떤 일이라도 해도 된다는 풍조가 생겨났으며, 이로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가 합법과 불법의 모호한 경계선에 있는 일을 행함에 있어 일말의 주저도 없는 형편에 이르렀다. 입법 미비로 인하여 미처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았다가 사회적 문제 제기가 있어 보완 입법이 이루어진 사례들로 인한 폐해와 갈등을 우리 대학도 거의 모두 경험하였다. 대학이 대학답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학구성원들이 자부심을 갖기 위해서는 대학의 운영 기준은 달라야 한다. 합법적인가 대신에 합당한 일인가 여부를 물어야 한다. 불법 여부를 떠나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아야 한다. 필요한 일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다는 것은 결코 대학 사회에서 용납될 수 있는 자세는 아니다. 조금 더디고 돌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합당한 방법을 통해 대학이 운영되기를 바란다. '지름길이 결국은 가장 돌아가는 길'이 될 수 있다는 역설을 기억해야 한다. 적절한 과정과 방법을 통해 합당한 일만 한다는 원칙을 총장께서 견지해 주셔야 대학 운영의 새로운 기준이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또 하나의 변화는 단과대학 및 학과와 대학본부 간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대학의 근원적 기능이 '교육과 연구'에 있다면 이를 직접 담당하는 단과대학과 학과가 대학의 중심이며, 대학본부의 부서들은 '교육과 연구'라는 본원적 기능이 잘 수행되도록 지원·조율하는 역할을 맡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자원배분 및 인사'를 다룬다는 업무의 특성 때문에 언젠가부터 본부 부서들이 대학 내에서 '갑'의 위치에 올라선 것은 문제이다. '교육과 연구'에 필요한 적절한 인적·물적 자원을 확보하는 데 있어 단과대학 및 학과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권한과 정보를 가진 본부 부서가 건축의 부담을 '교육과 연구'의 주체들에게 지나치게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자의적으로 설정한 권한에 의해 단과대학과 학과의 인사에 관여하고 교원 신규임용 여부를 위협한 것과 같은 사례는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정계를 대학 본부의 권력의지를 강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한 것은 아닌지 우려하며 비판하는 의견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대학 본부의 행정은 모름지기 규정에 따라 구성원들이 예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신뢰를 확보할 수 있으며, 구성원들의 동의와 인정이 있어야 정책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이런 상식이 우리 대학의 운영에 통용될 수 있도록 총장께서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린다.

특집

신임 총장에게 바란다 | 주제별/단대별

주제별 | 교육

경영학과 조영호

교육의 본질을 고민하자

‘IMF 외환위기’는 우리 대학에도 큰 변화를 일으키는 촉발요인이 되었다. 우리나라 대학의 수준이 이래 가지고는 ‘IMF위기’ 극복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선진국 진입은 어렵도 없다는 생각하에 정부는 1999년부터 Brain Korea 21(BK21) 사업을 펼치며, 대학의 연구역량강화 사업을 펼친다. 그 때부터 우리나라 대학은 온통 신경을 연구에 쓰게 되었고, 대학의 순위를 매기는 것 대로서 연구실적이 가장 중요하게 취급되었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이 되면서 오피니언 리더들 사이에서 다른 답문이 술술 피어나기 시작했다. “대학의 본질적 기능이 무엇인가” “온통 연구와 논문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교육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2008년부터 정부는 1조원의 자금을 확보하고 대학의 ‘교육역량강화’ 사업을 펼치게 된다. 게다가 2010년부터는 학부교육선도대학을 육성하는 ACE사업까지도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우리 아주대도 이 두 사업을 모두 유치하여 교육혁신에 큰 진기를 마련했던 게 사실이다.

대학의 본질적 기능은 교육과 연구다. 둘 모두를 잘 해야 하고, 둘 사이의 균형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그래도 굳이 선후를 따진다면 교육이 먼저 아닐까. 교수와 직원들이 가장 많이 매달리는 일이 교육인 것만은 틀림이 없다. 어느 대학에서나 교육에 많은 인력과 비용과 에너지를 쏟아 붓고 있지만, 정말 제대로, 잘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반성할 점이 많다. 교육역량강화사업과 ACE사업을 하면서 우리는 ‘잘 가르치는 대학’을 표방하였다.

융복합 트랙도 만들고, 읽기와 쓰기 교육도 하고, 다양한 교수법과 학습법도 도입하였다. 작년부터는 특성화사업과 LINC사업까지 보태져서 창업교육, 글로벌 교육, 산학협력교육도 활성화되고 있다.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로 ‘교육혁신 상품’이 많다. 그러나 여전히 역부족이다.

사회변화는 더욱 가속되고 있다. 우리가 배출한 인재를 쓰는 기업에서는 ‘대학에서 도대체 어떤 교육을 하느냐’고 불만이다. “창의성이 부족하다” “끈기와 열정이 부족하다” “글로벌 마인드가 없다”고 투정한다. 그래서 기업은 그들 나름으로 따로 교육을 한다. 예의범절부터 말이다. 아무리 대학이 개혁을 한다고 해도 사회변화를 그대로 따라가기는 어려운 세상인 듯하다. 이럴 때일수록 본질로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

교육의 본질은 기능의 습득, 지식의 학습이 아니라, 인간을 한 인간으로 제대로 자라게 하는 것,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몫을 다하게 하는 것, 그런 ‘인간의 성장’이 아닐까. 우리 학생들이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발견하게 되고, 삶의 목표를 인식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교육 아닐까...

새 총장님에게 교육의 본질에 대해 고민해 보십사 하고 제안하고 싶다. 우리 교수들과 교직원들이 애정을 가지고 학생들과 자신의 삶과 일생에 대해 대화하고 관계를 맺어가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보자고 말씀 드리고 싶다.

주제별 | 연구

응용화학생명공학과 김재호

외국에서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연구역량이 부족한 대학은 좋은 대학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몇 년 전 US news & world

report에 난 기사 중에 대학을 결정하려는 고등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연구중심 대학으로 진학해야 하는 10가지 중요한 이유를 열

거 하였고 그 중 첫 번째가 “Top researchers can also be top teachers.” 이었다.

타 대학과 비교한 우리 학교의 전반적인 경쟁력 순위보다 아주대 연구 역량 순위가 더 낮다. 교수들 중에 논문, 특허, 산학협력 등 어떤 부문에서든 연구 실적이 전혀 없는 교수 비율, 연구 성과를 많이 내는 학문 분야나 규모가 큰 학문 단위에서의 연구 실적 저조 등과 연구역량 강화에 대한 리더십, 연구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 여러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아주대 연구 경쟁력을 약화시킨 원인일 것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아주대의 연구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의 이러한 상황은 아주대 구성원 모두의 책임이다.

김동연 총장이 취임사에서 연구 활성화와 성과 창출, 인센티브 혁신을 언급하였듯이 새로운 총장과 함께 아주대 구성원이 힘을 합쳐 현재의 연구 역량이 좀더 나아질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학교 발전의 필수 요소가 아주대학교 구성원 전체가 함께 노력하는 것이듯이, 아주대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것 또한 총장과 소수의 사람들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총장의 리더십과 연구 역량 강화에 대한 의지는 연구력 제고의 출발이라고 생각한다.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총장이 해야 하는 첫 번째 일은 구성원의 합의와 협조를 이끌어 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연구역량의 핵심은 수월성, 효율적인 지원, 자율성이라고 생각한다. 이 세 가지 요소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구성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고, 구성원의 참여는 총장의 리더십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교수들에게 연구 하려는 동기 부여를 하고 대부분의 교수가 어떤 행태로든 연구를 수행하는 학교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신임 총장이 꼭 실행해야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1937년에 초급대학으로 시작해 57년 동안 홍콩 제조업에 필요한 technician 양성과 직장인 재교육 기관의 역할을 하며 ‘연구’에 관한 어떤 요소도 없던 대학이 1994년 종합대학 형태인 홍콩 폴리텍 대학으로 개편되며 연구 역량을 꾸준히 키운 결과, ‘2013/2014년 QS 아시아 대학 전체 순위 25위, 2013/14년 QS 전 세계 대학 순위가 161위였다. 연구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던 교수가 대다수인 대학을 10여 년 만에 3명의 총장의 리더십으로 일관되게 정책을 실행하고 구성원의 협력을 이끌어 내고, 홍콩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유도하여 지금의 연구 역량이 뛰어난 세계적인 대학으로 변모 시켰다고 본다.

아주대학교가 다른 학교에 비하여 압도적인 연구 역량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연구역량을 제고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가장 대

표적인 전략이 선택과 집중일 것이다. 특정 분야를 전략분야로 선택하고 집중 지원을 하려면 모든 당사자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제도를 실행하기 위한 설득을 총장이 앞장서서 해야 한다.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현재 아주대학교의 연구 역량이 국내 뿐 아니라 세계 대학과 비교하여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인식이 공유되고 구성원 스스로가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애쓸 수 있는 기회와 상황을 학교의 리더십이 만들어 주어야 한다. 학교는 교수들의 무능을 비난하고, 교수들은 학교의 정책 부재와 재정 지원의 미비를 탓하면서 아주대 캠퍼스 밖 다른 대학들이 얼마나 힘들게 애쓰고 있는지를 외면 한다면 아주대의 연구 경쟁력 제고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이때 학교 리더십이 도와주고 함께 노력하는 진정성이 필수적이다.

처음의 시작은 작고 어려워도 확장성 및 파급력이 큰 분야부터 지원하고 구성원이 노력하면 아주대도 연구력이 뛰어난 대학으로 인정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여기에는 재원이 필요하다. 외부의 추가적인 재정 공급이 없이 주어진 학교의 재정 중에 절약하고 예산의 재배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연구력 강화 정책 시행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 좋은 콘텐츠를 교수들이 합심해 만들어 주면 총장은 중앙정부, 지자체, 기업, 개인 등 어느 곳이든 학교를 도와 줄 수 있는 곳이면 열심히 찾아 다니고 설명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학교 식당에서 동료 교수와 어울려 식사하는 총장도 좋지만 학교를 위해 열심히 외부 사람 만나느라 하루에 다섯 끼를 먹는 총장도 지금 아주대학교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수월성 있는 집단이 더 잘 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연구를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고 있는 개인이나 몇몇 그룹이 아주대의 연구 역량을 크게 높이는 것은 한계가 있다. 우리 대학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한동안 연구를 하지 않았지만 연구를 다시 시작하면 좋은 연구를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교수들이 많다. 신임 총장은 소규모라도 연구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여 지원제도를 만들고, 교수들에게 연구를 다시 시작하겠다는 동기를 부여해 주길 바란다. PDS(plan-do-see)의 관점에서 정책이 수립되면 정책 시행의 성과가 도출 될 수 있도록 지속성, 연속성을 유지하고 정책 시행 후 필히 결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구성원과 공유하고 개선해 가면 분명히 연구 역량이 뛰어난 아주대가 될 수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총장이 바뀌고 보직교수가 바뀌면서 이런저런 새로운 시도를 하고 예산도 지원했지만 그 제도 시행 후 학교 전체로는 어떤 성과가 있었고 수혜를 받은 그룹이나 개인이 어떤 성과를 도출 했는지 확인하고 다면적인 후속 조치가 있었던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다. 제도 시

행 후 결과에 대한 분석과 지속성을 위한 개선 방안이 마련되는 계기를 이번 총장은 꼭 만들길 바란다.

대학의 운영에 어떤 조직보다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은 자율성이 연구의 우수성과 역량 확보에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연구의 수월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은 bottom up 방식으로 각자가 속한 학문 영역에서 스스로 평가하여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진단하고 학교가 도와줄 것과 교수들이 스스로 노력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공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학과의 교수들과 리더십이 각각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전략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총장이 꾸준히, 진솔하게 구성원과 대화하고 설득하고 작은 목표라도 스스로 정해 실천하게 되는 상황을 만들고 이에 필요한 자금, 인프라, 인적 구성 부분에 supporter 역할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시험 앞두고 벼락치기 공부하듯 대학 평가를 위한 지엽적인 정량적 지표를 일방적으로 제시하고 강요하는 것이 대학의 연구 역량 강화 방안이 될 수는 없다.

총장의 리더십과 끊임없는 대화와 협의를 통해 아주대 구성원 모두 똑같은 기준으로 평가 받지 않아도 되고, 역할이 다른 것이 인정되고 다른 역할을 구성원이 속상해 하지 않으며 선택해서 나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총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학교 발전은 구성원 전체의 합의에 의해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목표가 정해지고, 학교 발전이라는 공동 목표를 향해 구성원 전체가 각자의 역할에 대해 동의하고 자발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본다.

총장이 취임사에서 언급한 대로 “향후 아주 50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 하기 위해 단기간 내에 지엽적인 지표 개선 같은 단기적인 정책 보다는 근본적으로 연구 역량이 강화되는데 필요한 기틀을 세우는 정책을 실행하여 개교 50년을 향해 가는 아주대 학교가 연구 역량이 뛰어난 훌륭한 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는 총장이 되길 기대한다.

주제별 | 재정

의학과 생화학교실 이재호 물리학과 이순일

신임 총장이 대학을 어떻게 운영하고자 하는지는 예산 편성을 통해서 그 모습이 일부 나타날 것이다. 당장은 이미 수립된 2015 학년도 본예산에 따라 대학이 운영되고 있으나, 다가오는 1차 추경 예산(안)의 작성에는 총장의 대학운영 철학을 반영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교육과 연구’를 하는 것이 대학의 기본 역할이라는 원칙을 지키며, 우리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집행되도록 해주시기 바란다. 본예산 대비 추경에서 늘어나는 수입의 규모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이 늘어난 수입이 여러 세목으로 분배되어 흔적 없이 사라지지 않고 온전히 ‘교육과 연구’ 경쟁력을 높이는 데 직접 투입되기를 기대한다.

급한 일만 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일은 챙기지 못하는 우를 범하기 쉽다. 예산안의 편성에 있어서도 매년 제한된 수입을 나누어 배정하는 것에만 매몰되어, 정작 그러한 배분이 가져 올 (또는 가져 온) 결과에 대한 점검은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장기 전략적 목표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계획을 세우고, 이를 통해 구성원들에게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심어 주시기 바란다. 또한, 그 동안 단기적 정책들의 누적 효과에 대한 평가가 일체 부재 했다는 비평을 염두에 두고, 정책의 시행

결과에 대한 평가와 이를 정책 변경에 반영하는 제도를 도입·정착시켜 주시기를 부탁 드린다. 우리 대학의 장기적인 균형 발전에 대한 신뢰가 생긴다면 단기적·순환적 집중지원에 대해 구성원들은 인내를 가지고 지지를 보낼 것이다.

재정 수입의 확충은 우리 대학의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사안이다. 대학 전체의 발전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라는 관점에서 수입 확충 방안을 원점에서 재점검 해보시기를 기대한다. ‘아주대학교’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에서 창출되는 수익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우리 대학의 발전을 위해 바람직한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대학공동체를 구성하는 각 단위에서 수행하는 사업들의 수익이 대학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적절히 이용되고, 이로부터 파생하는 후광효과에 의해 각 사업들이 더 융성할 수 있는 긍정적 순환구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

재정 운영의 투명성 제고 필요성을 재론하지 않을 수 없다. 충분하지 않은 재정 수입을 이유로 일률적인 예산 삭감을 요구하면서 적립금, 법정부담금, 시설관리비, 교육외비용 등의 항목 지출이 편성·변경되는 것은 문제이다. 예산 편성에 있어 분명한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교육과 연구’에 직접 필요한 항목의 삭감은

신중히 하도록 해야 한다. 재원의 성격 상 ‘교육과 연구’에 투입이 합당한 수입의 경우에는 타 항목을 후 순위에 두는 예산 편성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결산 시점까지도 ‘조정’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예·결산 내역의 변경은 지양되어야 한다. 예측이 불가능하며 돌발적인 변동이 이루어지는 방식의 재정 운영은 대학구성원들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총장이 관장할 회계에는 병원회계도 있다. 물론 병원회계의 경우 의료원에서 독립적으로 예산을 수립하고 운용해왔으나 교비회계와 병원회계, 그리고 법인회계 사이에 적지 않은 자금이 전입, 전출되며 그 액수도 증가 추세인 만큼 큰 틀에서의 이해와 감독이 필요하다. 법인의 여력이 크지 않은 우리 형편 상, 기본적으로 의료원은 수익 창출과 이의 재투자로 인한 진료 수준의 질적, 양적 성장이 다시 수익 창출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유지해야 한다. 병원이 교비회계 (의대, 간호대를 제외한)에 기여할 수 있는 정도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의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년간 그 기여액이 증가추세에 있었음을 인식하며 적절한 기여 수준에 대한 병원과 대학 본부 간의 합의 및

그러한 공로에 대한 인정이 양성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법인이 세 가지 수익사업을 추가했다. 영안실, 병원전산, 의료기기 및 의료용품이 그것이다. 모두 병원 관련 사업이며, 적어도 어느 시점까지는 우리 대학병원이 최대 혹은 유일한 거래처가 될 것이다. 이것이 그간 나름의 평형상태를 유지해 온 교비회계, 병원회계, 법인회계간의 관계에 어느 정도의 변화를 초래할지는 두고 봐야 알 일이지만 법인회계예의 기여는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고 대부분 교비회계와 병원회계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운용되어야 한다는 컨센서스가 법인과 대학본부, 의료원 간에 설정되는 것이 필요하다.

재정 수입의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에 있어 신임 총장이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을 자연스럽게 기대하지만, 그간 회계와 재정 분야에서 축적한 신임총장의 탁월한 경륜을 감안할 때, 한 발 더 나가 큰 틀에서의 우리 대학의 재정운용 원칙과 방향을 잘 설정하실 것을 믿고 기대해본다.

**** 편집자(주):** 재정부문은 재정학 전공자께 의뢰하지 않고, 다년간의 대학평의원회 위원 경험을 통해 우리 대학과 의료원의 재정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 두 교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주제별 | 행정

행정학과 김준한

우선 신임 총장의 취임을 축하한다. 정부에서 30여 년간 성공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였다고 평가를 받고 있으므로 아주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좋은 역할을 하리라는 기대도 크다. ‘행정의 달인’ 이라고 부를 정도의 경험을 갖고 있으므로 행정 부문에 대해 특별히 주문을 하는 것이 필요할까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신임 총장이 주로 경험한 중앙부처의 고위직과는 달리 아주대학교의 행정은 소위 ‘일선관료제’ (street-level bureaucracy)의 특징을 갖고 있으므로 그런 관점에서 세 가지 총론 수준의 당부를 하고자 한다.

첫째, 현재 아주대학교의 모든 구성원에 해당하는 상황이지만, 행정 담당자(보직교수 및 직원)들의 사기도 낮은 수준이라고 판단되므로 대책이 필요하다. 관련 이론이 지적하듯이 일선관료들은 반복적으로 지루한 일에 종사하면서 업무량이 많고 민원인들과 직접 접촉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는다(이론적으로 보면 대학 조직에서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들도 일선관료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대학교 직원이라는 직업은 특별한 변화가 없는 유사한 일들을 반복하면서 승진 및

전직 기회도 제한적인 등 폐쇄적인 성격이 강하다. 그래서 수동적이며 책임회피에 몰두하는 관료주의적 행태가 만연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적절한 사기 진작책이 없으면 업무 성과 향상을 위한 노력을 수행하지 않게 되는데, 현재 아주대학교의 상황이 그러하다고 판단된다. 직원들의 사기 진작책으로서는 인사 분야(채용, 승진, 전보, 보수, 복리후생 등)의 제도 뿐 아니라 아래 항에서 언급하는 업무 관련 개혁 작업도 중요하다.

둘째, 적극 행정의 문화를 확산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일선관료들의 업무 환경은 적극 행정을 수행할 유인을 저하시키며, 이를 방지하는 경우 행정은 대학의 사명을 수행하는데 장애물로 작용하게 된다. 현재 아주대학교 행정 부문에서도 적극 행정의 노력을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며 이것이 우리 조직의 침체에 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예를 들어, 행정과정에서 규정들의 해석은 제정 취지에 맞게 합목적으로 하여야 하나, 적극 행정에 대한 보상은 없고 책임과 부담의 증가만이 돌아온다면 형식적·소극적으로 할 것이다. 그 결과 학생이나 교수들에 대한 서비스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보신주의가 자리 잡게 된다. 이는 권위주의적인 행정을 고착시키며, 행정 담당자들이 서비스 제공자가 아니라 의사결정 과정의 문지기가 되어 구성원들의 의욕과 사기를 저하시켜 조직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하는 문제점을 초래한다. 적극 행정을 위해서는 업무수행 방식의 변화(권한과 책임의 명확화와 일치, 참여 기회 확대, 업무 몰입 동기부여, 새로운 시도가 환영 받는 문화, 성과보상 체계의 실행 등)가 필요하다.

셋째, 자원배분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의 제고가 필요하다. 이는 일선관료 보다는 총장을 비롯한 보직자들의 의사결정 과정 및 결과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이번 학기 행정학과의 예산(실험실습비, 학생지원비, 회의비 등 모두 포함)이 420만원이 배정되었다고 한다. 학생수가 170여 명이니 1인당 25,000원 정도이며, 학생들이 지불하는 등록금의 1%도 안 되는 금액이다. 행정학과에 개설된 20개 정도의 과목 별로 약 20만원이 소요되는 특강을 1회씩 개최하면 다른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학과 예산이다. 교육부

지원금 등을 받는 학과들은 아무 문제없이 풍족히 쓸 수 있기 때문에 학과 예산이 거의 필요가 없는 상황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다른 상황에 처해 있는 학과들에 대해 배려는 고려조차 하지 않는 행정은 구성원들에 대한 모욕이자 알파한 만용이다. 게다가 나름대로의 합리성이 있다면, 이런 결정의 배경과 내용이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알려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교수들은 이런 상황에 대해 그 어디에서도 정보를 제공받은 일이 없으니 조직을 신뢰하고 열정을 바칠 의욕이 생기겠는가? 예산 뿐 아니라 공간 확충 및 배정, 행정지원 인력의 배정, 신입교수 충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원배분의 개선이 필요하다.

대학의 사명은 교육, 연구, 봉사이지만 행정의 지원이 없으면 어느 기능도 제대로 수행될 수 없다. 또 행정의 질은 구성원들의 협조를 이끌어 내는 데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신입 총장의 그간의 행정경험을 살려 아주대학교 행정 체계와 과정 그리고 문화를 개선하는데 앞장 서 주기를 바란다.

단대별 | 정보통신대학

전자공학과 나상신

전자장치에 증폭기라는 것이 있다. 앰프라고 흔히 불리는데, 작은 신호를 크게 늘리는 장치다. 이것 덕에 미약한 전파신호가 크게 키워지고, 휴대전화가 소통을 위한 중요한 기기로 쓰일 수 있게 된다. 라디오나 텔레비전 송수신기에도 다 들어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인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정보가 전파될 수 있다. 이뿐이라, 가정에서 5.1채널 오디오시스템으로 영화관 분위기를 즐긴다면, 역할에 충실한 용량 큰 전력증폭기 5+1=6개의 협력된 향연을 감상하는 셈이다.

세상에 저절로 이뤄지는 일은 없듯, 증폭기도 제대로 동작하려면, 몇 조건이 만족돼야 한다. 첫째, 설계사양(스펙)에 맞는 좋은 부품이 증폭기 제작과정에 쓰여야 한다. 둘째, 증폭기의 동작점이 잘 설정돼야 한다. 동작점이란, 증폭기가 증폭기로서 동작되도록, 외부에서 공급해 주는 전압전류에 의해 결정된 동작의 환경을 말한다. 잘 설정된 동작점에 있는 증폭기는 미약한 입력 신호를 크게 확대 생성하여 출력 신호로 내보낸다.

최근에 영입된 새 총장으로 인한 부푼 기대감이 학내외에서 느껴지고 있다. 이 기대감은 새 인물의 단순한 등장을 초월하는 훨씬 더 중요한 의미에서 샘솟는다고 생각된다. 이번 총장 영입 과정에는 재단, 학내구성원, 동문과 사회인사의 폭넓고 깊이 있는 소통과 의견조율의 기제가 동작했다는 시각에서, 총장 영입 과정 그 자체만으로도 신뢰와 상호협력의 출발점으로서 의미가 아주

크다는 평가가 바로 그것이다. 기대컨대, 앞으로 이를 더욱 더 다듬고 발전시켜, 모름지기 지성인 집단에 걸맞은 패러다임으로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우리 아주대학교를 이끌 사양에 맞는 인사를 찾느라, 여러 후보들을 이리 저리 잘 살폈을 것이다. 그리해 영입이 결정된 새 총장은 대내외에 아주대학교를 대표하고 이끌 좋은 후보임에 틀림없을 것으로 믿는다. 특히 재단에 결정권이 부여된 사실을 고려할 때, 새 총장에는 재단의 의도와 의지가 크게 투영돼 있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재단이 두 팔 벌려 새 총장을 맞이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렇다면, 재단은 좋은 사양을 갖춘 인물을 맞이해 왔으니, 이제 그 후속 조치로서 그가 총장으로 제대로 운신할 수 있는 동작점을 마련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 곧, 새 총장의 구상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환경과 자원을 제공하는 책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포용과 지원을 실천 덕목으로 삼아야 한다. 이럴 때에만 우리 아주대학교가 이름에 딱 맞게 아시아 아니 더 나아가 전 세계를 누비는 알찬 인재를 배출하는 증폭기의 역할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새 총장의 개인 이력으로 판단해 보건대, 본질이나 차원에서 이전과는 확 다른 아주대학교의 동작점을 기획해 내고 이를 실현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 내용은 차츰 공개되겠지만, 적어도 ‘제2의 창학’이란 과감한 명제를 주의제로 설정한

것부터, 학내외의 큰 관심과 기대를 받고 있다. 아무쪼록 임기 동안 학교의 여러 구성원과 소통하며 안정적으로 직책을 수행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그리하여, 시간이 흐른 어느 날 이 시기를 되돌아보면 “우리 모두가 ‘천리를 보고 싶어, 또 한 층을

오르고자’ 노력했고 지금도 한층 또 한층 오르고 있습니다.” 라는 견해에 전적으로 공감할 그런 총장을 기대하고 싶다.

단대별 | 자연과학대학

물리학과 박지용 화학과 강혁

우선 아주대학교 제15대 총장으로 취임한 김동연 총장께 축하의 인사를 전한다. 그러나 현재 대학을 둘러싼 대내외 상황은 결코 우호적이지 않아 마음이 무거운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몇 년 동안 예상되는 구조적, 사회적 변화에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 아주대의 장래가 결정되리라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총장 이하 모든 대학 구성원의 지혜와 이해, 참여가 필요할 것이다. 현재 자연과학대학은 매년 1,000여 명 이상의 공과대학, 정보통신대학, 자연과학대학 학부생 전공교육의 기본이 되는 수학, 물리, 화학, 생명의 기초과학교육을 책임지고 있으며, 우수한 개인 연구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집단연구(BK21 플러스사업, 중점연구소 등)의 유치를 통해 아주대학의 연구역량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자연과학대학의 입장에서 교육, 연구 관련하여 업무를 시작하는 총장께 바라는 바를 간단히 정리해 본다.

■ 대학의 구조조정과 특성화

대한민국의 급격한 노령화와 출산율의 저하는 앞으로 10여 년에 걸쳐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나타나게 될 것으로, 이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하도록 정부, 사회의 압력이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원감축을 위한 대학구조조정이라는 전제아래 대학의 특성화가 안팎에서 요구되고 있다. 이와 같은 대학구조조정에서 우려스러운 점은 대학의 정체성과 기본책무에 대한 이해 없이 사회수요에 대응한다는 명분아래 취업률, 입학성적과 같은 단순한 잣대만을 기준으로 일부 대학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위 비인기학과의 폐지 또는 학과 통폐합과 같은 일들이 아주대에서도 벌어질까 하는 것이다. 대학의 구조조정은 대학의 역할과 학문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토대 아래 아주대의 특성과 미래를 고려한 대학구성원들의 고민과 합의에 의해 순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교육예산

대학등록금이 상당기간 동결된 여파로 대학재정이 어려워지면서 매년 교육관련예산이 삭감되고 있다. 특히 2015학년에는 일괄적으로 교육예산이 20% 이상 삭감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다. 자연과학대학이 기초과학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일괄적인 교육예산의 삭감은 우려스러운 일이다. 아주대가

잘 가르치는 대학을 표방하고 기초과학교육이 근간이 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실험실습관련 예산의 삭감은 기초과학교육의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재정의 건전화화를 위해 대학 본연의 임무에 해당하는 교육예산의 일괄적인 감축까지 필요한 일인지, 대학 예산 및 재정의 운영상황에 대한 설명과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예산절감에 있어서도 학과의 특성과 사업의 성격에 따른 우선순위를 세우고 집행하는 노력이 필수적일 것이다.

■ 연구 공간

실험 학문이 큰 부분을 차지하는 자연과학에서는 교수 개인의 연구실뿐만 아니라 실험 장비를 운용할 수 있는 공간과 대학원생들의 연구실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재 원천관에서 대학원생들이 실험하는 공간은 비좁고 기계들로 가득 차 있어, 만의 하나 사고라도 날 경우 제대로 대피를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운 지경이다. 실험실의 공간이 부족하여 장비를 복도나 출입문 옆의 공간에 설치하는 경우조차 보이는데, 위험천만할 뿐 아니라 소방방법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공간 사용 실태를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물론 필요하겠지만, 연구동의 신축과 같은 새로운 공간의 확보가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이다.

■ 업적평가

최근 개정된 교수업적평가 규칙은 우리 대학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의 하나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연구업적 평가에 있어, 저서의 중요성과 학술지 논문의 중요성이 서로 다른 분야들이 있고, 혹은 전시회 한 번이나 산학협력 한 건이 더 값진 분야도 있기 마련이다. 논문 저자의 순서가 의미 없거나 단독 저자가 당연한 분야가 있는 반면, 제1저자와 교신저자에게 큰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이 옳은 분야도 있다. 이를 무시한 기계적인 평가는 단지 최소한에 그쳐야만 하며, 학문의 다양성을 고려할 수 있는 보완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상향된 업적 평가 기준을 달성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2013년 한 언론 기업의 대학 평가를 보면 우리 대학은 종합 16위에 올라있지만 '계열평균 교수당

자체연구비'는 43위에 그치고 있다. 연구비와 공간을 포함한 각종 지원이 뒤따르지 않는 평가 강화는 또 다시 '마른 수건

쥐어짜기'란 비난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단대별 | 인문대학

불어불문학과 강충권

인문대학은 5개 학과가 각기 전공교육의 강화와 심화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오고 있고 기초교육대학의 강의도 상당 부분 담당하거나 지원하고 있으며 융합연구를 위한 노력도 꾸준히 경주해오고 있다. 다른 한편 인문대학 교수들은 교내의 연구지원도 미미하고 외부에서의 연구비 수주가 불리한 여건에서도 그 동안 연구 실적에 있어서 전국 대학들 중 10위 이내에 들어왔다.

그러나 작년 말부터 도를 더한 일방적인 학교 정책은 교육, 연구, 학생 취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책을 정립하지도 않고 무조건 모든 분야에서 교수들의 분발과 더 많은 성과를 요구하고 있다. 더욱이 그 동안 연구실적에 있어서 전국 상위권에 속해 온 인문대학 교수들에 대해서 상찬하는 보상이나 지원은커녕 그동안의 실적보다 무조건 더 나은 실적을 내라는 식의 일방적인 교원인사제도 개선안(승진, 재임용, 성과승격)을 전임 총장 주재 하에 지난 1월 27일의 임시교무위원회에서 통과시킴으로써 인문대학 교수들의 공분을 자아내어 인문대학 교수들은 이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아주대학교가 진정한 명문대학교가 되기 위한 조건이 되기도 하는 인문대학의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본부의 밀어붙이기 식의 정책과 행정을 지양하고 구성원들과 소통하는 민주적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달라는 것이다. 아주대학교의 첫째 이념은 인간존중이다. 총장과 본부 처장들이 이 기본이념조차 어기며 정책의 결정에 있어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지 않고, 대학의 정책 수립과 행정 절차를 줄속으로 처리하여 강요한다든지 교수들을 한낱 대학평가 지표의 제고를 위한 수단이나 도구 정도로 여기는 시각을 갖고 있다면 교수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이끌어낼 수 없으며 창의적인 발상이 생겨날 풍토도 만들지 못할 것이므로 신입총장이 말씀하신 '유쾌한 반란' 이 일어날 수 없다.

둘째, 인문대학과 인문학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감안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달라는 점이다. 요즘 학교본부는 일부 일간신문의 대학평가에 종속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며 사소한 차이의 통계에 함몰되어 학문상의 특성을 도외시한 채 계량화에만 몰두해 있다. 그것도 대학평가에 관련된 항목의 숫자에만 매달려 있다. 서로 숫자상의 무한 경쟁을 하면 한국의 모든 대학이

명문대학이 될 것인가? 필경 교육을 소홀히 하게 되면서 무리하게 더 많은 양의 논문을 쓰면 아주대학교에 훌륭한 인문학의 대가가 양산되어 명문대학으로 발돋움할 것인가? 그것은 비단 아주대학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대학 모두가 당면한 문제이기도 하다. 인문학은 본질적으로 계량화될 성질의 학문이 아니다.

인문대학 교수들은 교육과 연구와 학생지도와 각종 사업에 매진하고 있으며 곧 다가올 문화의 세기에 대비하여 아주대학교에서 중요한 일익 내지 허브의 역할을 담당할 태세가 되어 있다. 아주대학교가 종합대학으로서의 위상을 높이려면 총장과 학교 본부가 단과대학별 특성을 감안하고 단과대학들 간에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노력과 지원을 해야 한다. 그러할 때 단과대학 간에 끊임없이 서로 위상을 상승시키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명문대학으로 발돋움할 것이다.

셋째, 예산의 적정한 배분과 지원이 절실하다. 예산이 대폭 감축되어 학과 운영에도 많은 애로 사항이 있으며 실험실습비도 격감하여 학생들은 수업자료 준비나 학과 행사나 소학회 활동 등에 많은 지장이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실험실습비를 무조건 일률적으로 줄여야 하는지 재검토하고 재산정과 배분을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교수들에 대한 연구비 지원도 대폭 늘려야 할 것이다. 외부에서의 인문학 연구 지원도 줄어들었고 외부 연구비 수주도 불리한 여건(수도권 대학 차별, 대규모 대학교에 유리한 대규모 연구 사업 지원, 신진 연구자 및 비전임교원 우대 지원 등)이 되어 가고 있다. 그러함에도 학교 측은 인문학 연구 지원의 열악한 사정을 감안하여 오래 전에 지원했었던 인문학 연구 특별지원금을 부활시켜서 조성할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인문학 논문은 단독 연구가 대부분이기 마련인데 학교의 연구비 지원 규정은 정교수가 단독연구를 할 때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두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교내 연구비 지원의 활성화가 외부 연구비 수주의 초석을 마련한다는 점도 학교 본부는 인식해야 할 것이다.

넷째, 전임 총장 시절부터 학과 평가에 있어서 취업률을 주요 항목으로 하겠다는 안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지 않아도 졸업생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인문대학의 교수들은 졸업생들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하여 전공교육의 강화, 어학능력 강화 교육, 진

로지도위원회 운영과 경력 개발 센터 활용, 졸업생 초청강연과 동창회 네트워크 구성, 취업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제 모색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만약 정부 기관이 취업률을 대학평가의 주요 항목으로 한다면 그것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제대로 이루어내지 못하는 정부가 스스로의 책임을 대학에 전가하는 것이며 대학에서 학과 평가의 주요 항목으로 취업률을 강요한다면 그러한 처사는 대학 본부 측이 졸업생 취업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과 실천을 하지 않고 학과에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다. 특히 우리 학교는 외부 연구비 지원과 마찬가지로 취업에 있어서도 고용자 측이 지방대를 고려할 때는 수도권 대학으로 분류되고 서울 지역 대학을 고려할 때는 지방대학으로 분류되는 지리적인 불리함이 있다. 이것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교수들의 노력뿐만 아니라 학교 본부 측에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정

책을 수립하고 취업 담당 전문 인력과 체제를 갖추어서, 한편으로 학생들의 취업을 위한 사전 진단과 철저한 준비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다른 한편으로 본교의 내실 있는 위상과 우수한 학생들의 능력을 대외적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하여 본교의 인지도를 높이는 가운데 졸업생의 취업을 제고를 위한 인적, 사회적 네트워크를 확충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아무쪼록 우리 대학교의 첫 번째 이념인 ‘인간존중’이 모든 구성원 사이에 실현되고, 학교 본부가 단과대학들의 특성을 살피고 지원하는 정책을 펴는 가운데 모든 교수들이 진지하면서도 즐겁게 교육하고 연구하는 캠퍼스, 창의적이고 생동감 있는, 진정한 ‘윤택한 반란’이 일어나는 대학이 되기를 인문대학 교수들은 소망한다.

단대별 | 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대학 교수 일동

우선 총장님의 취임을 축하 드리며, 총장님께 거는 우리 사회과학대학 교수들의 기대가 큼을 말씀 드립니다.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이가 우리들만은 아니기에, 총장님께 바라는 사항들이 학내외에서 붓물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를 빌어 이러한 신임 총장님에 대한 기대가 모두 실현되기를 희망하면서, 그동안 아주대학교에 대해 가졌던 소회를 전하고자 합니다.

대학의 정체성은 건학 이념을 통해 나타나지만, 모든 대학들이 지향하는 건학 이념의 기본적 토대는 연구와 교육이라고 하는 두 축입니다. 대학은 학문적 수월성을 가진 연구, 진정성 있는 교육이라는 두 가치를 함께 지향하고 또 그래야 대학다운 대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학이 추구하는 연구와 교육이 가진 본원적 가치는 신자유주의적 무한경쟁 또는 이윤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기업경영 방식을 통해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학은 하나의 소우주로서 각 구성주체들이 가진 자율성과 독자성이 존중될 때 진정한 교육과 연구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우주에서 특히, 교육과 연구를 일선에서 책임지는 교수들에게 일방적·강압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일률적 평가의 잣대를 적용하는 것을 통해서 대학 본연의 궁극적 가치 실현이 불가능합니다. 신임 총장님께서 다양성, 자율성, 독립성과 전문성을 지닌 대학과 교수사회의 특성을 잘 파악하시어 아주대학교 재임기간 동안 연구와 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구현하는 데 기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희망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를 부연하고자 합니다.

먼저 교육과 관련해 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 가치와 목표의 재정립,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수단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아주대학교는 개교 이래 다른 어떤 대학보다도 교육에 충실하여 왔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는 학생들의 높은 교육 만족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주대학교의 교육전통을 유지하고, 미래에 지금보다 더 나은 교육수준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교육 가치와 전략에 대해 철저한 평가 한 후 이를 바탕으로 변화하고 있는 교육환경에 적절히 대응하는 새로운 교육 가치와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신임 총장님이 말씀하시는 윤택한 반란도 이러한 교육적 가치와 목표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신임 총장님께 거는 기대가 무척 큼니다.

특히, 현재 우리의 학생들뿐 아니라 미래의 우리 학생들을 위한 새로운 교육 가치와 전략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그 기반이 되는 재정에 대한 재검토가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몇 년간 아주대학교는 ACE사업, LINC사업, 대학특성화 사업 등 대규모 정부 재정사업의 수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늘어난 재정이 교육현장의 밑바닥까지 파고들어 소기의 교육효과를 가져왔다고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신임 총장님이 재정·예산분야의 전문가라는 점에서 최소한 교육재원의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배분을 통해 교육혁신을 이루어 내리라고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연구와 관련하여, 연구기반 구축과 연구 활성화를 위한 총장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연구는 대학 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한 토양이며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구의 양적, 질적 수준의 제고를 위해서는 연구 당사자인 교수들의 노력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존재해야 하지만 지난 몇 년간 아주대학교의 연구 인프라는 쇠퇴에 쇠퇴를 거듭해 왔습니다. 소수의 평교수들과의 짧은 대화만으로도 그 현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연구 인프라의 재건을 위해서 연구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불필요한 규제의 혁파, 우수 연구집단에 대한 전폭적 지원, 융합연구와 공동연구의 활성화, 교육과 연구간 연계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틀 정비, 취약한 연구재원의 확충 등에 대한 총장님의 지속적 관심과 노력을 부탁 드립니다.

연구와 관련하여 하나 더 말씀 드리면, 단기적 성과주의에서 벗어나 다음 세기를 준비할 수 있는 학문적 토양이 아주대학교에 마련될 수 있도록 고유한 학문영역과 자율성을 존중하여 주시길 요청합니다. 최근 우리나라 대학들은 언론과 교육부의 양적 평가에만 기초한 순위경쟁에 매몰되어 교수들에게 끊임없이 더 많은 논문 편수만을 채울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철학도, 가치도 부재한 상태에서 단지 순위만을 위해서 모든 대학들이 줄서기 경쟁을 하는 속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교육과 연구가 설 곳이 없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킬 깊이 있는 통찰과 혁신적 연구성과물은 결코 나올 수 없습니다. 한가지 주제로 20년을 천착한 피케티와 같은 학자도 나올 수 없습니다. 아주대학교가 그 동안 작지만 내실 있는 대학으로 인정받아온 것은, 무엇보다도 열심히 가르치고 연구하는 교수들이 한번 오면 떠나고 싶지 않은 대학이었기 때문입니다. 최소한의 업적기준은 필요하겠지만, 학문적 자율성을 존중해주는 문화가 학내에 유지 발전되어야만 우리 대학이 가진 장점을 지켜나갈 수 있고, 10년, 20년 뒤에 아주대학교는 고유한 학풍을 발전시키고 사회와 국가에 기여하는 대학이 될 것입니다. 신임 총장님도 단기적 관료적 성과주의가 공무원들의 이타적 동기를 어떻게 훼손하는지 많이 경험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호흡이 긴 학문을 위한 토대가 아주대에 마련될 수 있도록 총장님도 노력하시고 저희 교수들도 노력했

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지만 앞의 바람보다 결코 가볍지 않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이 바람이 앞의 목표를 가능케 하는 수단적 가치를 아울러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학은 학생, 재단, 직원, 동문회, 그리고 교수 등 핵심 주체들이 서로 신뢰하고 협력할 때 발전할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아주대학교에서는 지난 수 년 간 이를 위한 총장의 역할이 매우 미흡하였습니다. 대학공동체 내에서의 신뢰 축적은 아주대학교와 같이 그 규모가 크지 않은 대학에서 소량의 핵융합이 거대한 에너지를 만들어 내는 것과 같이 비약적인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이들 다섯 주체의 중심에 총장님이 있다는 점에서 구성주체 간의 협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총장님의 역량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요구 됩니다. 이와 같은 신뢰자본의 축적은 존중과 배려에 기반한 소통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 총장님이 일국의 국무를 훌륭하게 조정했던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교내에 쌓여있는 불신의 구조를 파악하시고 이를 해소하여 신뢰 축적에 큰 획을 긋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지난 몇 년간 소통부재로 인해 형성된 침체된 학교 분위기를 쇄신할 수 있는 유쾌하고 혁신적인 실험 또한 기대해 봅니다.

신임 총장님의 현재의 마음과 다짐이 임기의 끝까지 계속되었으면 합니다. 최근 취임식, 입학식, Brown Bag 세미나에서 보인 총장님의 색다른 철학과 적극성이 교내에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취임 초기에는 아주대학교 현안들에 의욕을 보이고 거창한 마스터플랜을 세우며 소통을 강조하셨던 분들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타성에 젖어 초심을 잃어버리는 경우를 종종 목격했습니다. 총장님께서 입학식에서 학생들에게 전했던 말씀 중 “이 세상이 여러분의 꿈과 열정을 기다리고 있다.” 라고 하신 말씀을 빌려, “아주대학교가 김 동연 총장님의 꿈과 열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 드립니다. 유쾌한 반란이 임기 내내 계속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단대별 | 의과대학

가칭 ‘총장님께 바란다’라는 제목의 짧은 글을 쓰기 위해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책상 앞에 자리잡고 앉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낭패가 있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새 총장님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부임 이전의 길고 경이로운 공직이력과 그 사이의 유학 생활 등 얼핏 전해들은 그 동안의 경력을 더듬어 보았습니다만 그런 몇 줄의 약력으로 그 동안 걸어오신 인생을, 특히 인격을 단정할 자신은 없습니다.

의학과 호흡기내과학교실 신승수

부임 이후의 첫 행사이자 많은 내외빈이 참석하셨다는 성대한 취임식을 창 너머로 보았습니다. 긴 시간 원고지도 없이 하시는 막힘 없는 말씀으로 청중을 사로잡았다는 소식도 참석한 이들을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뿐, 그날 이후 한 달여가 지난 지금에 이르기까지 총장님이 우리 조직에 어떤 영감을 주시고 참신한 변화를 만들어가고 계신지에 대한 새로운 뉴스가 말단 교수

사회에는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에게 어떤 협조를 원하시는지 말입니다.

출범한 지 이미 스무 해가 넘어 성년의 나이에 접어든 의료원이지만 안정적인 조직의 유지와 구성원의 행복, 더 나아가 앞으로의 도약을 향해 넘어야 할 많은 장애물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양한 직역과 이해를 가진 사람들이 존재하는 조직이 바로 이곳입니다. 더욱이 그 범위를 교수에 국한한다 해도 '백인백색'의 대표 집단 중 하나인 교수사회에서 하나의 목소리가 만들어지기는 어렵습니다. 단순한 몇몇의 “~를 바란다.”란 말을 나열하기에 앞서 솔직히 궁금합니다. 새 총장님은 우리 조직을 얼마나 이해하고 계신지,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신지, 앞으로 무엇을 기대하시고 어떤 변화를 이끌어 내실 건지, 그리고 이를 위해 의료원 교수들

공개적이고 투명한 공모와 심사과정을 통해 다른 여러 쟁쟁한 후보들을 물리치고 선택되신 분이러니 과거의 총장님들과는 어떻게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실지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 교수들은 총장님을 모시기로 한 아주대학교 구성원들의 장고(長考)가 선수(善手)임을 확인할 수 있는 총장님의 '유쾌한' 비전과 리더십을 지척에서 목격하고 싶습니다. 만나고, 말하고,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는 접점을 가지고 싶습니다. 어떤 새로운 바람이 우리 조직에 불어 올까 하는 바람과 흥미를 가진 채 기다리는 의료원 교수들에게 가까운 시일에 화답해주기를 기대합니다.

특집

신임 교원 소개(가나다순)

의학과 약리학교실 곽중영

의대를 졸업하고 기초의학을 선택하여 연구실 생활을 해 오면서도 그 동안의 시간들을 뒤돌아보지 않고 왔으나 이제 그전 일하던 대학에서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으로 옮기면서 연구실 생활 30년 가까이 별 이루어 놓은 것도 없는 나 자신이 보이며 앞으로 연구를 할 시간도 매우 한정된 것 같아 미묘한 감정이 일어남을 감출 수가 없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동안 연구자로서 또는 교육자로서의 생활을 돌아보고 후회하기보다는 미완성의 일들을 정리하고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며 특히, 유능한 젊은 기초의과학자가 들어와 대학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회를 중진 연구자에게 준 대학에 감사할 따름이다. 지금 수행하고 있는 연구과제인 파이오니아 사업은 융합과제로서 중진연구자와 신진연구자들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몇 년간 젊고 열기왕성한 젊은 연구자들과의 공동연구를 해 오면서 나름으로는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이 드는 것처럼 아주의대에서 나 개인의 연구뿐만 아니라 그룹연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나의 책무이자 동료 연구자에 대한 태도가 아닐까 생각한다. 최근의 의학연구는 기초 및 임상 구분 없이 보다 폭 넓으면서 동시에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시점에서 훌륭한 연구 성과를 내고 있는 우리 대학교 및 의료원의 여러 교수진과 함께 힘써으로써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으며 또한 실질적으로 환자의 치료와 진단에 유용한 연구성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이러한 바람은 우리 대학교와 의료원에서 교수진들에 대한 보다 새로운 관심과 지원이 있다면 빠른 시일 내 희망이 아닌 현실로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진다.

정보컴퓨터공학과 곽진

안녕하세요. 이번 학기부터 아주대학교 정보컴퓨터공학과에서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는 곽진입니다.

저는 일본 큐슈대학교 방문연구원과 일본 큐슈시스템정보기술연구소 특별연구원을 지냈으며, 귀국하면서 정보통신부 정보보호기획단 개인정보보호팀에서 통신사무관으로 한국에서의 첫 직장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순천향대학교 정보보호학과에서 교수생활을 시작했고, 8년 동안 근무했던 순천향대학교를 떠나 이번 학기부터 아주대학교 정보컴퓨터공학과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8년 동안 순천향대학교에서 교수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노력하면서 만들고 쌓아놓은 여러 기반들을 뒤로하고 다시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근무했던 만큼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많은 생각과 고민 끝에 선택한 결정인 만큼, 후회 없는 정말 잘한 결정이라 믿고 있습니다. 아직은 조금 낯설고 어색한 감이 없지 않지만 하루라도 빠르게 아주대학교의 일원으로 녹아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수가 많더라도 조금만 너그러운 기다려 주시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이나마 아주대학교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학과 서성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5년 봄학기에 아주대학교 경영학과에 새로 임용된 서성원입니다. 아주 가족으로서 훌륭한 학교에서 좋은 기회를 주셔서 큰 영광입니다. 그리고 탁류청론에서 교수님들께 인사를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은 제가 여러 모로 부족하지만, 훌륭한 여러 교수님들께 겸손한 자세로 열심히 배워서 하나씩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박사과정에서 재무관리를 전공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업재무를 중점적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에서 부채비율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가장 최적인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부채비율을 한 번 조정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입장에서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따라서 경영자는 부채비율을 조정하겠다는 결정을 쉽게 내리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의 위험이 커질 때에 기업에서 어떤 효율적인 방식으로 부채 비용을 조정해야 하는지 연구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여러 학문 분야에 기여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카이스트 수학과에서 학사학위를 받았고, 이후에 동 대학교 경영대학에서 석박사 통합과정을 졸업했습니다. 박사학위 취득 이후에는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에서 강의조빙교수로 재직했습니다. 지난 경험을 바탕으로 아주대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정진하겠습니다.

임용된 이후에 잠깐의 첫인상이었지만, 우리 학교 학생들의 성실하고 진지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학생들에게 모범이 되는 교육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전히 학생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가르쳐야 하나 많은 걱정이 있지만, 계속 고민하여 좋은 방법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학생들에게 애정을 가지고 하나라도 더 가르쳐 줄 수 있도록 충실히 수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어불문학과 송근영

저는 이번에 새로 아주 가족이 된 불어불문학과 송근영입니다. 파리 13대학에서 언어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어휘의미론 및 어휘 통사론 영역이 저의 주 관심 연구 분야입니다. 또한 그간 단어들 사전, 이개어 사전, 전자사전 등 다양한 사전 작업에도 참여해 왔습니다. 아주대학교에 오기 전에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불어불문학과에서 3년간 일했는데, 그곳에서 다양한 연령과 배경의 학생들이 학업을 향해 보여 주었던 열정을 통해 많은 자극을 받았다면, 아주대학교 캠퍼스에서는 역시 젊음과 생동감, 그리고 글로벌한 분위기를 온몸으로 느끼며 큰 에너지를 전해 받는 것 같습니다. 특히 불어불문학과에서는 아프리카를 비롯한 프랑스어권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국내의 다른 불어불문학과에서는 전례가 없는 시도인 만큼 매우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학부 때부터 다양한 프랑스어권 국가와의 교류를 경험하며 국제적 감각, 언어 능력, 실무 능력을 익히고 또 실제로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자는 것이 이 사업의 취지로, 학생들의 큰 호응과 교수님들의 야심차고 헌신적인 노력을 보며 모쪼록 저도 제 몫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봄기운이 전해 주는 설렘의 마음을 앞으로도 늘 잊지 않으며 즐거움과 보람이 가득 찬 학교생활을 해나가고 싶습니다.

의학과 정형외과학교실 송형근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에 신규 임용된 송형근이라고 합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2003년에 졸업하고 세브란스 병원에서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수료하고 정형외과 외상 분야의 전임의 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일하기 시작한 것은 2012년 03월부터 특임 진료조교수로 일하기 시작하여 3년 만에 전임 발령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사고는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고 보험을 든다고 해서 사고 이전의 상황으로 다시 돌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교통사고, 생활 안전 사고, 산업장에서의 사고, 자연재해 등 외상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한번의 사고는 사회와 개인이 그간 쌓아왔던 모든 것을 잃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상에 대한 예방과 적절한 대처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의료원은 국가에서 지정 받은 권역 외상 센터로 경기도의 중심 외상 병원으로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교통사고 발생률, 교통사고 사망률, 산업재해 재해자수 모두 전국에서 1위이며, 중증외상 환자 발생 비율이 2위일 정도로 외상 발생률이 높은 만큼 아주대학교 의료원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외상 분야의 전문의로 일하며 환자의 생명을 살리고 아주대학교 의료원 및 권역 외상 센터가 전국을 넘어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편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소재공학과 유학기

며칠 동안 차갑게 몰아치던 꽃샘추위가 서서히 물러가고, 이제 캠퍼스에도 새 학기의 따사로운 봄기운이 번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팔달관 9층 건물에서 활기찬 대학생들의 모습들을 물끄러미 쳐다보며 15년 전 대학 새내기 시절을 회상해 봅니다. 그 때 나는 어떤 꿈을 꾸었나, 아니 정확히는 어떤 생각들을 하며 또 어떤 고민들을 품고 지냈는지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2015년 3월부터 공과대학 신소재공학과에 신규 임용된 유학기입니다. 저는 포항공과대학교(POSTECH)에서 학사 및 박사학위를 마치고, 독일의 작은 대학도시 괴팅겐(Göttingen)에 위치한 막스플랑크 생물물리화학연구소에서 박사 후 연구원으로 3년 동안 재직하다, 아주대학교의 일원이 된 지 이제 2주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탁류청론의 지면을 통해 직접 뵙기 어려운 선임 교수님들께 인사 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박사학위 기간 동안 산화물 박막 및 나노 재료를 성장하여 그 성장 원리를 구명하는 연구를 수행하였고, 이러한 재료들을 광전자 소자(유기 및 무기 발광다이오드 혹은 태양전지)에 적용하여 소자의 효율 향상을 구현하는 과제들도 병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막스플랑크 연구소에서는 특이한 물성을 가지는 나노 재료표면(금속-절연체 전이재료, 그래핀과 같은 2차원 재료)을 합성한 후 그 표면에 다양한 운동 상태를 (레이저를 통한 기체의 진동, 회전, 그리고 병진운동 에너지의 양자화) 가지는 기체 분자를 충돌시켜 충돌 전후에 나타나는 운동 상태의 변화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기체-고체표면 사이의 충돌에서 나타나는 운동역학과 에너지 흐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박사과정을 통해 경험하였던 다양한 재료들의 합성과 분석 그리고 박사 후 과정을 통해 공부했던 기초과학적인 학문의 경험을 통해 향후 아주대학교에서 서로 다른 학제 간 융합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시대 및 사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재료의 개발 및 응용 분야의 개척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아울러, 학생들에게 직접 다가가는 교육을 통해, 15년 전 제가 풀지 못했던, 그래서 시간의 흐름 속에서 묻히고 말았던 많은 생각과 고민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그 무엇도 될 수 있고, 그 어떤 꿈을 꾸어도 자유로운,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가진 훌륭한 아주대의 학생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참된 교육을 지향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학과 소화기내과학교실 임선교

안녕하세요. 의과대학 소화기내과학교실 조교수로 임명 받은 임선교입니다.

저는 1994년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한 이후로 줄곧 아주대병원에서 수련의 과정과 진료조교수에 이르기까지 뿔뿔히 아주인입니다.^^ 학생 때부터 강의해 주시고, 이끌어주셨던 여러 교수님들께 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같은 식구로까지 맞이해 주셔서 더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정말 열심히 해서 모교이기도 한 아주대학교에 보탬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와 진료, 교육 영역에서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주목할 만한 실적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의과대학과 병원, 그리고 여러 훌륭한 교수님들이 계시는 본교가 같이 있는 아주대학교의 이 환경이 앞으로 연구에 있어서 큰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제 분야에서 열심히 하겠구요, 더 나아가서는 여러 교수님과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무언가를 창출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올리며,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임소연

안녕하세요, 저는 사법연수원을 31기로 수료한 후, 법무법인 광장에서 4년을, 법무법인 바른에서 10년 동안 변호사로서 활동하다가, 이번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로 오게 된 임소연이라고 합니다. 제가 담당하게 된 분야는 민사소송법과 민사실무입니다.

2주간의 신입교수로서의 생활은 새로운 사회에의 적응과 준비로 몹시도 바빴지만, 저에게 새로운 활기와 목표를 제시해 준 참으로 즐거운 시간들이었습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이곳 아주대에서 캠퍼스의 맑고 신선한 공기를 느끼며 하루를 시작하고, 존경하는 여러 교수님들과 함께 학생들에게 강의할 수 있다는 것이 큰 기쁨이었습니다.

저는 그 동안 변호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보다 더 심도 있는 공부와 연구에 대한 열망을 항상 가지고 있어 왔습니다. 이제는 그러한 실무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관심분야와 아쉬웠던 부분에 대하여 연구에 매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저는 선배 교수님들로부터 겸허히 지도와 충고를 수용하여 저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양보의 미덕으로 동료 분들과도 더불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생들에게는 존경 받는 교수, 연구에 매진하는 교수, 강의를 잘하고 학생들의 불안한 미래를 같이 상담해주고 격려해 주는 안내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에게 이곳 아주대에서 근무할 수 있는 영광을 주신 점, 이 기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의학과 정형외과학교실 정준영

안녕하십니까? 의과대학 정형외과에서 근무중인 정준영 이라고 합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세브란스 병원에서 전공의 및 삼성서울병원에서 전임의 과정을 마친 후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현재 4년째 근무 중이며, 금번에 조교수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릎 관절 분야를 세부 전공하였으며, 현재 의료원 외상센터에서 슬관절 및 하지 외상분야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아주대학교 및 병원에 대해서 그다지 많지 않은 지식을 가지고 처음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으나, 현재는 평생을 같이 하고 싶은 좋은 선배 및 동료 교수님들을 뵈고 연을 맺게 되어 즐겁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어느덧 “아주인” 이라는 호칭이 자연스러워짐을 몸소 느낍니다. 새로운 총장님과 함께 제 2의 창학을 꿈꾸는 시점에서 신입 교원으로 발령 받은 것에 많은 감사 및 책임감을 느끼며, 저 자신도 “젊은 아주인” 으로서 유쾌한 반란을 일으킬 수 있도록 정진하겠습니다.

전자공학과 지동우

동료, 선배 교수님들께 인사 드립니다. 이번에 정보통신대학 전자공학부에 조교수로 임용된 지동우입니다. 저는 포항공과대학교에서 2013년 박사학위를 받았고, 2011년부터 2012년까지는 미국의 미시건 대학교에서 방문 연구원으로 있었습니다. 박사 졸업 후에는 유럽 벨기에에 위치한 반도체 연구소인 imec에서 2년간 연구원으로 근무한 뒤 올 3월부터 아주대학교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주 연구 분야는 아날로그 반도체 회로 설계로서 모바일, 웨어러블 기기나 초소형 센서 노드 단에 사용되는 저전력 고성능 아날로그 회로를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주대학교에 오고 나니, 밖에서 보아왔던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형태의 융복합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개발하고 운영하신다는 것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센서와 시스템을 연결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아날로그 회로를 연구 하는 구성원으로서, 여러 동료, 선배 교수님들과 함께 다양한 형태의 학제 간 연구는 물론, 학교가 추구하는 융복합 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영상의학과 갑상선분야 하은주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의료원 영상의학과 갑상선분야 신입교원 하은주입니다.

저는 2년간의 본원 특임교원 과정을 거쳐 조교수로 임용되었습니다. 주된 관심분야는 갑상선 및 두경부 영역의 영상진단 및 비수술적 치료이며, 그밖에 갑상선 결절의 진단 기법 및 진단 도구의 개발, 갑상선 결절의 위험도 계층화 분석 등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 저는 전임 교원으로서 요구되는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신입교원으로서 많이 부족하지만 앞선 훌륭한 교수님들의 가르침을 받아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학문적으로는 현재까지 진행해왔던 연구결과들을 확장한 연구들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중 일부는 의료원 외에 다양한 분야의 교수님들의 도움을 얻어 융합연구로 진행이 필요한 연구들도 있습니다. 이에 많은 교수님들을 찾아 뵙고 도움을 구하도록 하겠으며 이에 학교에 바라는 점은 신진연구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 및 교원들 간의 소통과 교류를 위한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교육자 및 의료원의 일원으로서 학생교육과 환자진료에 있어 많은 바 소임을 다하고자 하며 교실 및 임상과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교 및 의료원에서도 다양한 국내외 학술적 교류와 연구발표를 위한 교원들의 부단한 노력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다양한 연수과정을 통해 경험과 지식을 축적하고 친분을 교류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 아주대학교 교원으로서 또한 의료원의 일원으로서 일을 함에 있어서는 전문가로서 신중하게, 병원 내 동료들과는 조화롭게 협력관계를 유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들의 건강칼럼

식품알레르기, 알고 함께 대처해 가요!

의학과 소아청소년과학교실 이수영

식품에 의한 이상반응은 독성 반응이나 식품 불내성, 심리적 이상반응 등의 비면역학적 기전에 의한 경우와 면역반응에 의한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이중 면역학적 반응에 의한 이상반응을 식품알레르기라 하며, 최근 전세계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심각한 이상 반응도 증가하고 있다.

식품알레르기는 원인 식품을 섭취한 후 2시간 이내에 증상이 나타나는 즉시형 식품알레르기와 수시간 혹은 반나절 이후에 나타나는 지연형 반응으로 나누며, 이 중 즉시형 식품알레르기가 중요하다. 식품알레르기의 증상은 가려움증과 발진, 두드러기, 혈관부종 등 심각하지 않은 피부 증상만 있을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심한 복통, 구토, 기침, 천명, 호흡곤란, 신경계 이상 반응, 저혈압 등의 전신적인 심각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 중 기도에 부종이 생기거나, 복통이나 구토, 기침, 호흡곤란, 기절 등의 전신반응이 동반되거나, 저혈압성 쇼크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식품알레르기의 발생빈도는 영유아와 소아에서는 약 4-5%, 성인에서는 약 1-2% 정도이며, 어린 나이의 식품알레르기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약 50%-80% 정도가 호전되지만 성인의 경우는 아직까지 이에 대한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 알레르기를 잘 일으키는 식품은 영유아에서는 우유, 계란, 대두, 밀가루 등이 흔하며, 나이가 들수록 땅콩, 견과류, 생선, 갑각류, 과일류 등이 증가한다. 이처럼 연령에 따라 원인 식품의 발생빈도 차이는 있지만, 연령에 따라 완전히 구분되는 것은 아니어서 어린 나이에도 새우, 게, 과일 알레르기 등이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메밀, 들깨 등의 섭취가 외국보다 많으므로 이들에 대한 알레르기 환자도 있다. 한편 원인 식품의 조리법에

따라 증상 유발 정도가 다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날계란이나 계란찜을 먹으면 증상이 나타나지만, 구운 계란, 혹은 식빵이나 쿠키에 포함된 계란에는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고, 삶은 땅콩은 구운 땅콩에 비하여 반응이 약할 수 있다. 물론 소량에 비하여 다량 섭취 시 증상이 심한 경향이 있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반응의 정도가 다를 수 있다. 일부의 환자는 요리할 때 냄새를 맡고, 혹은 가루 흡입에 의해서, 혹은 피부 접촉에 의해서도 심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한정식 집에서 메밀 부침 냄새를 맡고 호흡곤란과 심한 두드러기를 경험한 환자도 있고, 밀가루 찰흙 놀이를 하다가 심한 반응이 나타나는 환자도 있다. 또한 평생 처음 먹어보는 식품에 대하여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환자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호흡기나 피부를 통해, 혹은 모유를 통해 이미 접촉하여 감작된 환자이다. 그러나 식품알레르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모유수유를 할 때 수유부가 특정 음식을 제한하는 것은 권고되지 않으며, 일단 모든 식품을 섭취하고, 나중에 증상이 나타나면 정확한 진단에 의하여 식이제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원인 식품을 단순히 먹어서는 아무 증상도 없지만 식품 섭취 후에도 운동이 동반된 경우 증상이 발생하는 “식품의존성 운동유발성 알레르기반응”이 있을 수 있는데, 밀가루에 의한 경우가 가장 흔하고, 우유나 기타 식품도 가능하다. 이미 잠깐 언급한 것처럼, 식품에 의한 알레르기 반응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피부 증상 이외에 호흡기, 위장관 증상, 그리고 신경계 증상, 저혈압 등을 동반하는 아나필락시스(알레르기 쇼크)이다. 아나필락시스는 원인에 노출된 후 수분 혹은 수시간 이내에 발생하며, 주변에 식품이나 약물, 혹은 기타 원인에 의해서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한 사람이 있다면, 상체를 하체보다 낮추어 환자를 눕히고, 119등에 응급요청을



아주대학교 교수회

전화: 031)219-2240
팩스: 031)219-1608
전자 메일: jj263@ajou.ac.kr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아주대학교 율곡관 263호

하고, 타이트한 옷을 풀어주고, 산소를 주고 등등의 일을 동시에 시행하도록 한다. 또한 이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되도록 빨리 에피네프린이라는 약물을 근육주사 하여야 하는데, 이미 아나필락시스로 진단받은 환자 중 일부는 병원에서 “자가주사용 에피네프린”을 처방 받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환자를 도와서 되도록 빨리 자가 주사할 수 있도록 한다.

식품알레르기가 의심되는 환자는 병원에 가서 원인 식품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며, 일단 진단이 이루어 지면 일정 기간 동안 철저히 제한식이를 하여야 한다. 해당 식품이 주재료인 경우는 물론, 부재료로 조금이라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주의할 하여야 하고, 교차반응이 있을 수 있는 식품도 함께 주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에서도 알레르기식품 표시제가

시행 중에 있으며 2015년 현재는 총 13종의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모든 공산품에 표시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다(계란 등의 난류, 우유, 대두, 밀, 땅콩, 메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그러나 아직은 음식점 등에 대해서는 법제화 되어 있지 않아서 식품알레르기 환자 자신이 해당 식품 성분이 들어 있는지 여부를 꼭 확인 하고 먹어야 한다. 따라서 식품알레르기 환자는 전문가에 의한 정확한 진단을 하고, 확인 된 원인 식품을 일정 기간 적절히 제한하면서, 정기적으로 자연소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와 더불어 지속적인 교육과 관리를 통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다.

소식

교수회 소식

■ 교수회 의장 및 감사 선출

2015년 3월 2일부터 3월 6일(의과대학의 경우 3월 4일-3월 6일)까지 시행한 아주대학교교수회 의장/감사 선거 결과 각각 투표가능인원 과반의 참여와 투표인원 과반의 찬성을 얻어 의장으로 이순일 교수(자연대학), 감사로 오동석 교수(법학전문대학원), 구형건 교수(경영대학)가 선출되었다.

이번 선거의 투표율은 66.3%(투표가능인원 582명, 투표인원 386명)였고 찬성률은 각각 의장 이순일 92.7%, 감사 오동석 95.3%, 감사 구형건 90.9%였다.

의장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이며 2015년 3월 1일부터 2017년 2월 28일까지이다.



편집위원회: 윤호섭(편집책임),
강충권, 구형건, 김상배, 노명우, 이재호